

# 한옥마을-내장산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전주시-정읍시, 광역 관광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해 여행상품·코스 공동 개발 운영

전주한옥마을과 정읍 내장산을 연결하는 여행코스가 개발된다. 특히 경기전과 내장산을 연결하는 조선왕조실록·동학 관광루트가 개발될 예정이어서 전북역사문화투어가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정읍시는 25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장,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코레일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 관광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에서 전주시와 정읍시를 연결하는 광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행정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연계 관광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도시 연계 관광정책개발과 관광마케팅 추진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교류 등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마케팅 활성화 △기타 전주시·정읍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상호협력 등 4가지 주요 협력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내장산을 연결한 조선왕조실록 관광콘텐츠와 동학관련 관광투어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통한 관광스토리텔링화로 연계해 광역관광을 활성화



전주시와 정읍시가 25일 전주시장실에서 광역 관광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유진섭 정읍시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키기로 했다.

또한 전주와 정읍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여행지도와 관광홍보물 등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광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양 도시는 향후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해설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읍시와 서로 상생하며 연계관광을 할

수 있는 물꼬를 마련하게 되어 반갑다"면서 "전주시와 정읍시가 지역연계 관광상품을 만들고 관광교류를 활성화하여 양도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사회혁신 리빙랩 사업 결과공유회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25일 한국전통문화의전당 5층 미니컨벤션홀에서 '2019 사회혁신 리빙랩 사업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앞서, 센터는 올해 4월 청년, 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의 27개팀을 선정,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2019 사회혁신 리빙랩'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시민 주도로 직접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하여 전주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함양시켜 장기적으로 예비사회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도 18개팀을 선정하여 운영한 바 있다.

지역주민의 역량이 발휘된 리빙랩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2018년 리빙랩 사업 중 평화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된 청년정장무료대여 프로젝트인 '두드림웃장'이 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전주시 일자리창출정책과에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됐다. /송효철 기자

## 대한노인회 전주지회장기

### 게이트볼대회 성료

대한노인회 전주지회(지회장 전영배)가 주관하는 제28회 대한노인회 전주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24일 송전동 게이트볼운동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전영배 지회장과 김광수 국회의원, 강동화 전주사회복지부의장, 김이재 도의원, 김원주 시의원, 지희민원과 35개동 분회장 등 70여명의 내빈이 참여해 34개 팀 선수 500여명의 선전을 함께 기원했다.

열린 경쟁 속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송전2동 A팀(남자)과 우이동 팀(여자)이 각각 우승을 거머쥐고, 준우승은 송전1동 A팀(남자), 덕진동 팀(여자)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풍성한 경품도 준비됐으며, 경품추첨에 앞서 93세에 노의장을 과시한 초고령 참가자인 이희신 어르에게는 축하의 선물과 꽃다발이 증정됐다. /송효철 기자

#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발굴, 시민 삶 쾌적하게

## 전주시, 주거재생 실무분과서 발굴한 24건 사업 설명

전주 구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집수리 사업단 구성과 토지은행(비축)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시는 25일 주거복지과 회의실에서 조준배 주거재생 총괄계획과와 시정정책연구원, 공공건축가, LH·LX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속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재생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주거재생 실무분과는 △집수리 공급대상 확대방안 등 사업 발굴을 위한 '집수리분과' △빈집활용

정책 발굴 및 자율주택정비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분과' △생활SOC 배치방안 및 마을단위 공간 조성에 대해 논의한 '생활SOC분과' △주거재생 플랫폼 구축 및 주거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한 '주거공동체분과'의 4개 분과로 운영됐다.

이들은 실제 사업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점검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해 분야별 관련된 사항 논의한 결과 총 24건의 사업을 발굴해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LH와 LX의 경우, 지난 달 전주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주시를 주거지 재생 활성화

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택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 아래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전주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밀집구역 설정' 발표 등 전후형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분과활동에 임했다.

또한 이날 공유회에서는 공간 발굴해온 △전주시 집수리 사업단 구성 △토지은행(비축)사업 추진, △생활SOC추진 프로세스 구축 △주거분야 사회경제적 주체 육성 등의 사업이 제시됐다.

시는 주거재생 실무분과에서 제시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 모범도시 '인정'

### 대한민국 솔라리그 기초지자체부문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상 수상

전주시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 시행 모범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는 25일 경남 거제시 거제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솔라리그(K-League)에서 기초자치단체부문 우수단체로 선정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솔라리그(K-Solar League)는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재생에너지 보급성과 정책을 겨루는 태양에너지

발전 경쟁리그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다른 기초지자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

를 바탕으로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협동조합과 민간단체를 공모대상으로 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 태양광 보급율에 대한 정량적 지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보급 이후 시설 관리 및 전력 활용 내용 △시민참여 등을 고려해 평가가 이뤄졌다. /송효철 기자

## 전주 금융복지상담소, 개소부터 현재까지 320명 소액채무 완전탕감 성과

### 4896건 금융상담·부실채권소각 154명 등도

전주 금융복지상담소가 지난 3년간 금융상담과 채무관리 상담 등을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도와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2016년 문을 열어 개소 3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4896건 금융상담 △320명의 소액채무 370여원 완전탕감 △부실채권소각 154명 등의 성과를 기록하는 등 금융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장기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건전한 재무설계 상담, 취업상담 등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차보증금 저금리대출전환안내 등 주택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 예수병원-장애인고용공단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25일, 재활센터 3층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예수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추진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 ▲장애인 고용을 위한 편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인프라 설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직무 도입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협약일 2개월 이내에 획득 등의 주요 내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의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은 42명이지만 현재 장애인 직원은 24명이다. 앞으로 예수병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을 설립해 예수병원의 장애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예수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란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다른 기관에 비해 낮는데



121년의 선한 역사를 가진 예수병원과의 협력이 성공적 선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예수병원에 감사를 표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회사를 설립한 사업체에 무상지원금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체는 신규 채용한 장애인 고용률 7년간 유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준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윤상 기자

## 전북대병원, 전국 국립대병원 축구대회서 우승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친선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내 동호인 모임인 전북대병원축구동호회(회장 소화기외과 김진영 교수)가 지난 21일 분당서울대병원 주최로 열린 제16회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친선축구대회에서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축구대회는 병원 상호간 정기적인 동호회 모임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특히 예선전 전 경기 승리에 최다득점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최우수선수상에 진료행정과



송재동 회원이 차지하는 기쁨을 토했다.

전북대병원축구회 김진영 회장은 "이번 대회의 우승에 이르기까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동호회 회원 여러분의 열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축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준 병원 내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원광대병원 김태현·전형구 교수 연구팀, 추계학술대회 '우수'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희)은 재직 중인 김태현·전형구 교수 연구팀이 최근 제주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대한체장담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학술 대회에서 '응급담낭 절제술이 어려운 환자에서 내시경적 경유담낭 배액술의 유용성과 안정성'이란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본 논문은 급성 담석 동반 담낭염의 주된 치료는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고령, 기저 질환 등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도 피부를 통한 담낭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담낭 배액관 삽입

술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피적 담낭 배액관 삽입술은 담즙 유출, 혈흉, 기흉, 시술 관련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배액관을 피부 밖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 삶의 질이 매우 저하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담낭 절제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경피적 담낭 배액관 삽입술이 아닌 체담도 내시경을 이용한 담낭 배액술을 시도하였고 높은 기술적, 임상적 성공률을 도출했다. 특히 시술이 어려웠던 환자 중 일부는 디지털 체담도 전용 내시경 스킵이 클래스 DS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시술도 피부를 통한 담낭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담낭 배액관 삽입

## 태풍피해 독거노인 가구 복구 지원

###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철)는 25일 남원시 이백면의 태풍 피해 독거노인 세대에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투입해 재해피해 복구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태풍 '타파'로 인해 붕괴된 담장을 재 축조하는 것으로, 해당 가정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이 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며, 복구를 염두조차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된 할머니(84세)는 "태풍으로 쓰러진 담장을 보며 답답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편 남원준법지원센터 마상철 소장은 "관내에 재해피해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신속히 복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